

최근 전국 의과대학 의학과 유급율 분석(1982-1986)*

계명대학교의과대학 교학부

윤성도 · 서수지 · 박우현 · 송준영

=Abstract=

Analysis of Recent Failure Rates in Nationwide Medical Schools (1982-1986)

Faculty Department,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Taegu, Korea

Sung Do Yoon, MD; Su Ji Suh, MD; Woo Hyun Park, MD;
Joon Young Song, MD

The authors conducted an analysis of recent failure rates in nationwide medical schools in Korea in order to set up a directing post needed because of the rapidly changing and progressive situation of the medical schools. The authors are presently involved with administrative responsibilities for medical school education in this particular institution but have had comparatively little experience in such particular institution in the past. The trends shown in this analysis are the result of questionnaires and other materials developed over the five years from 1982 through 1986,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present rate of failure at nationwide medical schools reveals a somewhat increasing trend over the past 5 years, with an average rate of 5.5% overall and with breakdown of 4.8% in National Medical Schools, 5.3% in Private Medical Schools, and 8.1% in our Keimyung University Medical School which is a relatively high rate. In general the trend reveals a higher rate in private medical schools than in national medical schools, with local medical schools being higher than in the capital region, and the newly established ones being higher than the older ones. It also reveals a decreasing tendency in the higher academic years.

A present 5 year failure rate of Keimyung University Medical School gives an average rate of 8.1%, which shows a gradual decrease compared with the peak rate of 16.8% in 1982. Of the students who are in the medical school of Keimyung University, the ratio of failed students to normal students in general is 57% to 43%, which indicates the rate increases as the students progress to higher academic standing. The percentage of students who failed more than twice was 12% and those who failed more than 3 times was 2%.

서 론

근자 많은 의과대학의 신설로 말미암아 의대졸업 생의 양산시대로 접어듬에 따라 이에 부합되는 의

학교육 방법과 방향설정이 해당 일선 의학교육연구자, 한국의대장협의, 한국의학 교육학회 및 한국의대교무과장 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신중히 연구되고 있다.

과거 10개미만의 소수 정예 의학교육을 하던 시

* 이 연구는 1988년도 동산의료원 특수과제 연구비로 이루어졌음.

* 이 연구는 1989년 3월 31일 제1회 한국의학교육 학술대회에서 구연 하였음.

대와 달리 현재 32개 의과대학이란 폭발적인 증가가 여러 가지 의학교육의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고, 더욱 더 심화될 조짐이 나오고 있다. 이런 차제에 의학교육의 과거를 되돌아 보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하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는 용단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여러 복잡다양한 문제 가운데 그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의학교육평가 또한 그중에서도 일부에서는 유급제도를 완화내지 없애자는 안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유급에 의한 재평가의 의미가 있는 일로 사료된다.

재료 및 방법

저자들은 최근 5년간 (1982~1986) 전국 유수의 의과대학의 최근 유급율 현황을 앙케이트 및 기타 자료를 수집하여 그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를 제출하여준 학교는 19개교 (사립 6, 국립 13)였으며 먼저 전국의 년도별 유급율을 의학과 학년별로 분석하였고, 이어 서울지역대학 대 지방대학 그중에서 본대학의 위치를 찾아보았으며, 국립대학 대 사립대학의 비교를 하였고, 또한 기존대학 대 사립대학 그 속에서 전국의 평균치와 본대학의 위상을 잡아 보았다.

또한 각 년도별 학년별로 어느 해 어느 학년에서 가장 유급이 많이 되었나를 국립대 사립대학, 기존대학 대 신설대학, 서울지역 대 지방대학 간의 유의성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대학의 유급현황을 년도별로 분석하여

보았다.

결 과

1. 전국 의학과 1학년 년도별 유급율(전국평균: 서울지역: 지방대: 본대학) 의학과 1학년의 유급율은 년도별로 보면 전국적으로년차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10~15%) 그 가운데 서울지역보다 지방대학에서 유급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본대학은 82년을 분기점으로 전국평균보다 낮은 유급율을 나타내었다 (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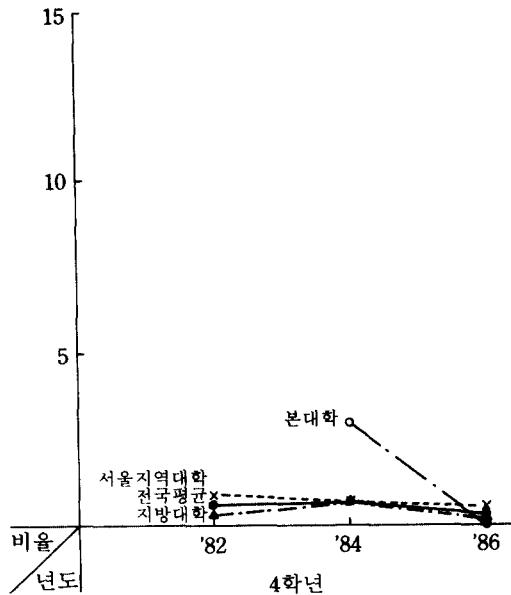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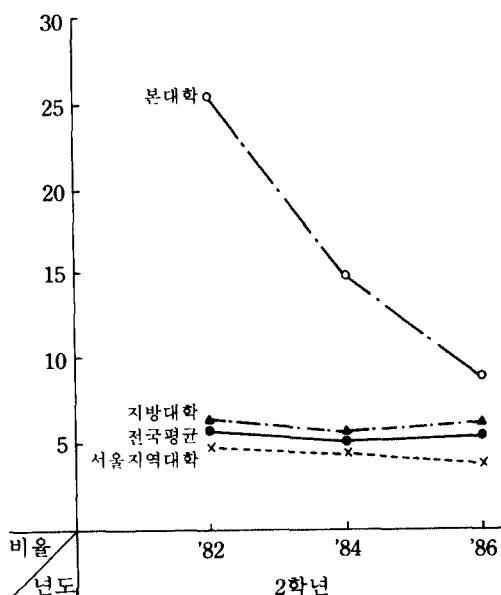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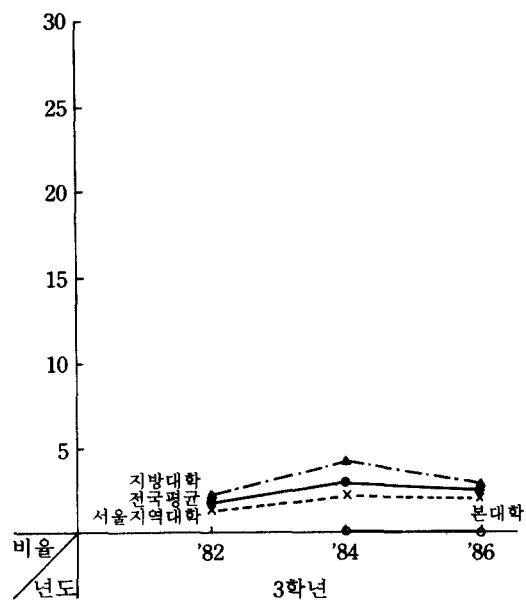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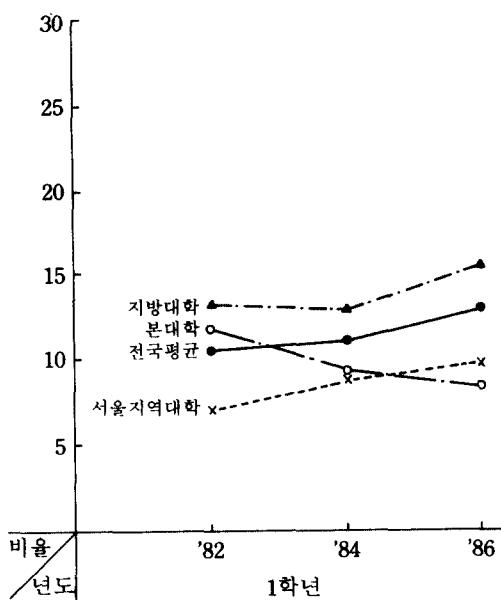
2. 전국 의학과 2학년 년도별 유급율(전국평균: 서울지역: 지방대: 본대학) 의학과 2학년의 전국 유급율은 큰 기복이 없이 평형선(5~10%)을 이루고 있으나 서울지역이 년차적으로 다소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본대학은 월등하게 높은 유급율로 급격 하강하는 형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년차적 하강 경향을 보였다(Fig 2).

3. 전국 의학과 3학년 년도별 유급율(전국평균: 서울지역: 지방대: 본대학) 의학과 3학년 전국 유급율 5% 미만으로 서울지역, 지방대학, 본대학 공히 대동 소이한 경향이며 86년도 경우 본대학에서는 1명의 유급생도 발생하지 않았다(Fig 2).

4. 전국 의학과 4학년 년도별 유급율(전국평균: 서울지역: 지방대: 본대학) 의학과 4학년에서 이 유급율은 전국의 대 전학년을 통하여 가장 저조한 가운데 본대학은 84년도에 전국 평균 이상의 유급이 발생

Table 1. 년도별 학년별 유급현황

구 분 년도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재적수	유급수	유급율	재적수	유급수	유급율	재적수	유급수	유급율	재적수	유급수	유급율	재적수	유급수	유급율
'81학년도	56	9	16.1%	—	—	—	—	—	—	—	—	—	56	9	16.1%
'82학년도	84	10	11.9%	47	12	25.5%	—	—	—	—	—	—	131	22	16.8%
'83학년도	77	7	9.0%	85	11	13.0%	35	0	0.0%	—	—	—	197	18	9.1%
'84학년도	94	9	13.8%	78	12	15.4%	73	0	0.0%	35	1	0.3%	280	26	9.3%
'85학년도	107	25	23.4%	92	2	22.8%	67	2	3.0%	72	3	4.2%	338	51	15.1%
'86학년도	110	9	8.2%	101	9	8.9%	71	0	0.0%	68	0	0.0%	340	18	5.3%
'87학년도	100	19	19.0%	112	16	14.3%	89	0	0.0%	71	0	0.0%	372	35	9.4%
계	628	88	14.0%	515	81	15.7%	335	2	0.6%	246	4	0.2%	1,714	179	10.4%



하였다(Fig 4).

5. 전국 의학과 1학년 년도별 유급율(전국평균 : 국립대학 : 사립대학 : 본대학) 의학과 1학년 전국평균

유급율은 다소 상승하고 있는데 비하여 본대학은 점차 하강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국립대학보다 사립대학에서 유급율의 상하 진폭이

보다 많이 발생하였다(Fig 5).

6. 전국 의학과 2학년 년도별 유급율(전국평균: 국립대학: 사립대학: 본대학) 의학과 2학년의 전국평균의 거의 유동성이 없이 일정한 비율의 양상을 나타내었으나 본대학은 급격히 하강하는 양상을 보여 주어 유급율 조정에 일관성이 없음을 보여주었다(Fig 6).

7. 전국 의학과 3학년 년도별 유급율(전국평균: 국립대학: 사립대학: 본대학) 의학과 3학년에서도 전국 국립, 사립대학 공히 소수의 유급율이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 3년간 본대학에서는 유급생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립대학이 국립대학보다 높은 유급율을 유지하고 있었다(Fig 7).

8. 전국 의학과 4학년 년도별 유급율(전국평균: 국립대학: 사립대학: 본대학) 의학과 4학년에서는 극히 소수의 유급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본대학은 84년을 기점으로 거의 제로에 가까운 유급율을 보여 주었다(Fig 8).

9. 전국 의학과 2학년 년도별 유급율(전국평균: 기존대학: 사립대학: 본대학) 의학과 1학년의 전국 유급율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으나 본대학은 하강 조정되어 서로 반대되는 경향을 보여 주었으며 신설대학이 기존대학보다 계속 높은 유급율을 나타내

었다(Fig 9).

10. 전국 의학과 2학년 년도별 유급율(전국평균: 기존대학: 사립대학: 본대학) 의학과 2학년의 유급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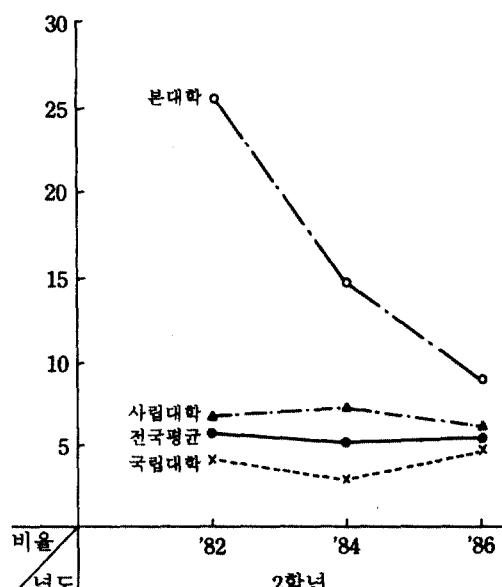


Fig 6. 전국의대 년도별 유급율 비교도
(전국평균: 국립대: 사립대: 본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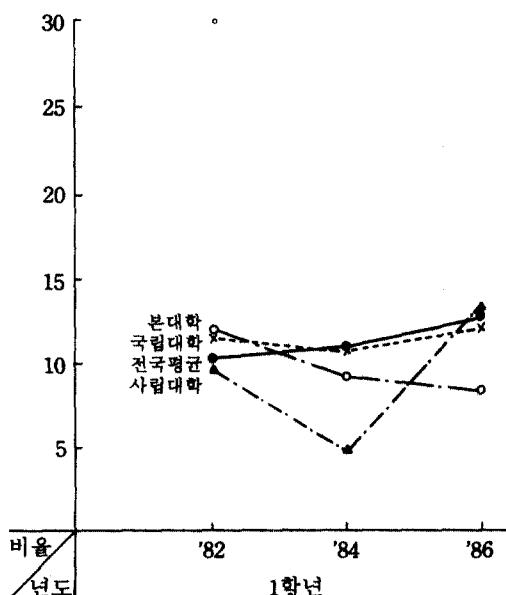


Fig 5. 전국의대 년도별 유급율 비교도

(전국평균: 국립대: 사립대: 본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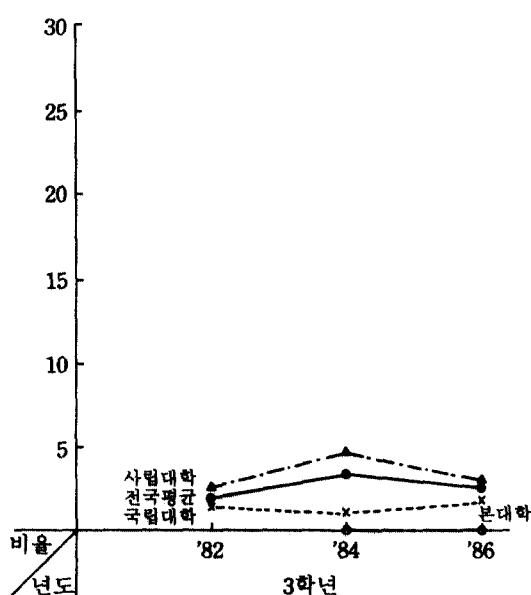


Fig 7. 전국의대 년도별 유급율 비교도

(전국평균: 국립대: 사립대: 본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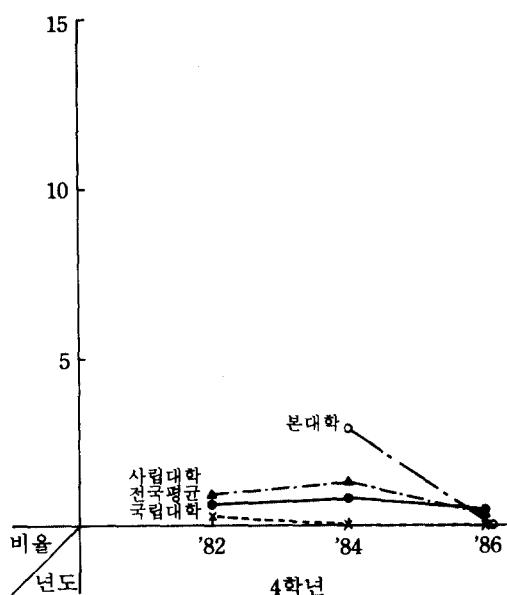


Fig. 8. 전국의대 년도별 유급율 비교도
(전국평균 : 국립대 : 사립대 : 본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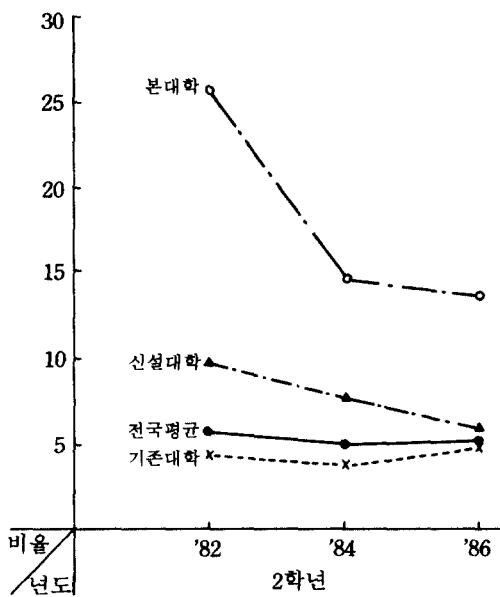


Fig. 10. 전국의대 년도별 유급율 비교도
(전국평균 : 기존대 : 신설대 : 본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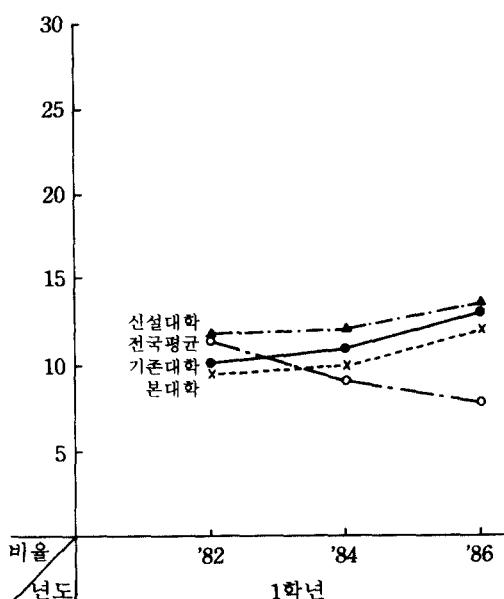


Fig. 9. 전국의대 년도별 유급율 비교도
(전국평균 : 기존대 : 신설대 : 본대학)

에 있어 본대학은 월등한 유급율을 보여 기존대학, 신설대학보다 많은 유급생이 발생하였는데 84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Fig 10).

11. 1982년도 전국의학과 학년별 유급율 비교 : 1982년도 전국 의학과 학생들의 유급율을 보면 전국대학 평균이나, 기존, 신설대학 공히 학년이 상급반이 될 수록 감소하였으나 본대학은 본과 2학년을 정점으로 하는 급격상승 하강의 기이한 현상을 나타내었다(Fig 11).

12. 1984년도 전국 의학과 학년별 유급율 비교(전국 평균 : 기존대학 : 신설대학 : 본대학) 1984년도에서도 1982년도와 대동소이하게 전국의 기존, 신설대학 모두 상급반으로 갈수록 유급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있으나 유난히 본대학은 본과 2학년에서 유급을 많이 시키는 현상이 나타났다(Fig 12).

13. 1986년도 전국 의학과 학년별 유급별 비교(전국 평균 : 기존대학 : 신설대학 : 본대학) 1986년도에서 전년도와 비슷하게 전국의 기존, 신설의대 의학과 유급율이 상급반으로 갈수록 하강하고 있었으나 본대학은 역시 의학과 2학년이 가장 높아 타대학과 비교가 되었으나 전년도에 비해 다소 둔화된 현상을 보였다(Fig 13).

14. 1982년도 전국 의학과 학년별 유급율 비교(전국 평균 : 국립대학 : 신설대학 : 본대학) 1982년도에서 전국의 국립, 사립대학간의 유급현상을 보면 의학과 1학년은 다소 사립대학에서 많이 유급되나 2학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사립대학에서 유급이 다소 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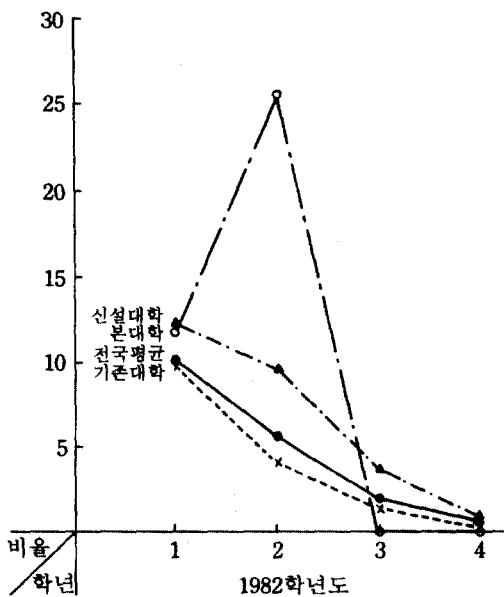


Fig 11. 전국의대 학년별 유급율 비교도
(전국평균: 기존대: 신설대: 본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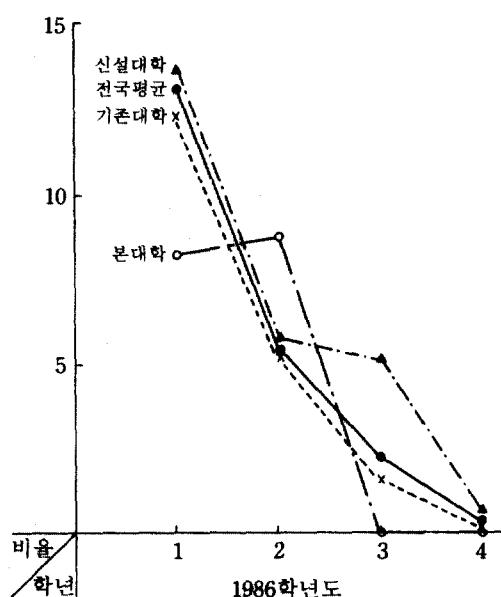


Fig 13. 전국의대 학년별 유급율 비교도
(전국평균: 기존대: 신설대: 본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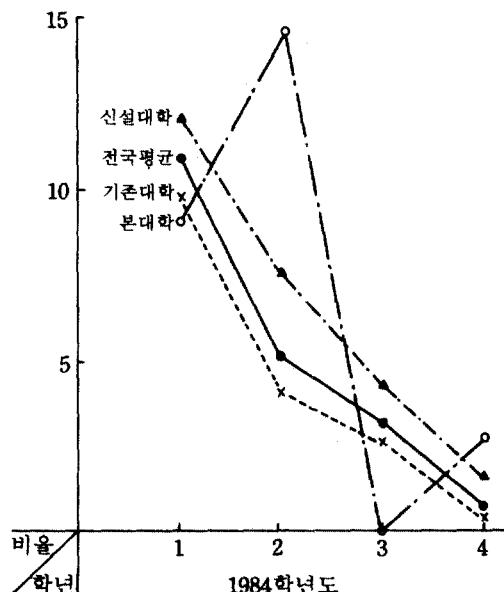


Fig 12. 전국의대 학년별 유급율 비교도
(전국평균: 기존대: 신설대: 본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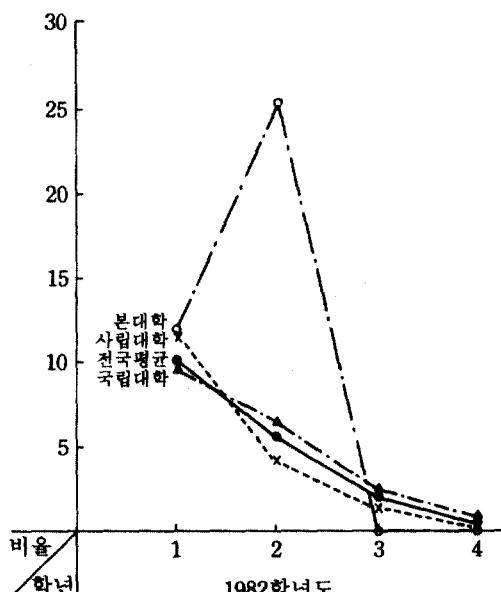


Fig 14. 전국의대 학년별 유급율 비교도
(전국평균: 기존대: 신설대: 본대학)

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본대학의 유급현황은 독특한 양상을 보여 2학년에서 가장 높은 유급율을 보여 주었다(Fig 14).

15. 1984년도 전국의대 학년별 유급율 비교(전국평균: 국립대학: 신설대학: 본대학) 1984년도 한해동안 전국의대 유급율을 학년별로 비교할 때, 전국평균

을 중심하여 의학과 1학년은 국립대학이 훨씬 높은 유급율을 보였으나, 의학과 2학년 이상에서는 오히려 사립대학이 국립대학 보다 높은 유급율을 보였는데 본대학은 이러한 추세에 상관하지 않고 의학과 2학년에서 높은 유급율을 보였다(Fig 15).

16. 1984년도 전국의대 학년별 유급율 비교(전국평균 : 국립대학 : 신설대학 : 본대학) 1986년도 전국의대 학년별 유급현황을 보면 사립대학이 다소 국립대학 보다 높은 유급율을 보이고 있다.

17. 서울지역대 지방의대의 학년별 유급율(1982~1986). 1982년, 1984년, 1986년도 의학과 학년별 유급율을 서울지역대 지방대학간 비교해보면 지방대학이 서울지역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유급율이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본대학에서는 의학과 2학년에서 항상 높은 유급율을 보여 주었는데 1986년도에서는 의학과 2학년 유급율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Fig 17, Fig 18, Fig 19).

18. 본대학 년도별 학년별 유급현황 본대학의 최근 7년간 전학년 평균 년도별 유급율은 10.4%였으며 1986학년도가 5.3%로 가장 낮았고 1982학년도가 16.8%로 가장 높았다. 학년별로는 1학년 14.0%, 2학년 15.7%, 3학년 0.6%, 4학년 0.2%를 나타내었는데 가장 유급이 많았던 학년도 1982년 2학년에서 25.5%였고, 그다음이 1985년 1학년 23.4%, 1985년도 2학년 22.8%

%의 순이었다.

19. 본대학 학년별 정상학생 : 유급학생 분포 비교 전체학생의 구성을 볼 때 총 409명 중 정상 : 유급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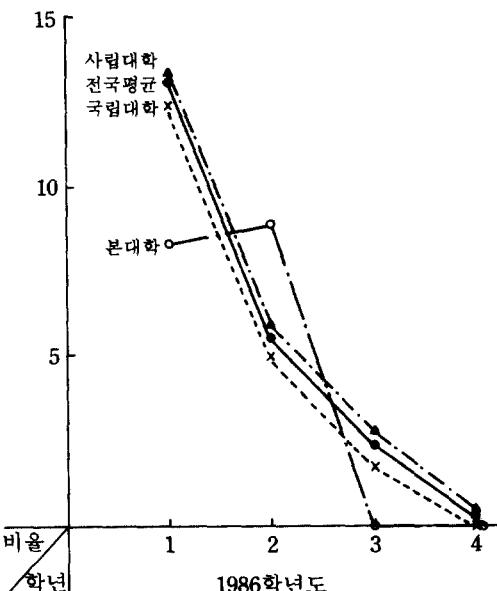


Fig 16. 전국의대 학년별 유급율 비교도
(전국평균 : 기존대 : 신설대 : 본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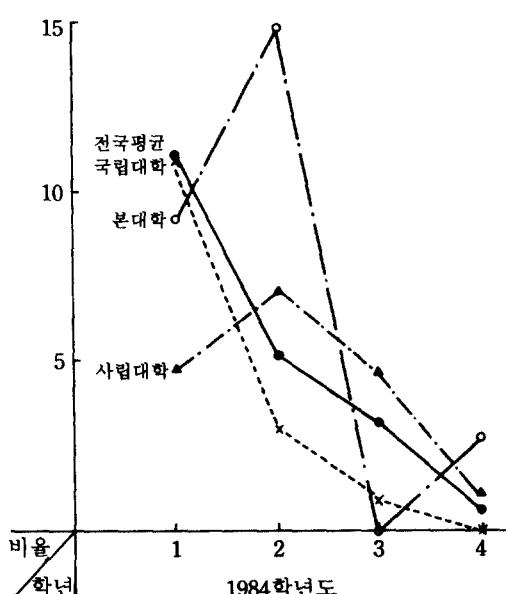


Fig 15. 전국의대 학년별 유급율 비교도
(전국평균 : 기존대 : 신설대 : 본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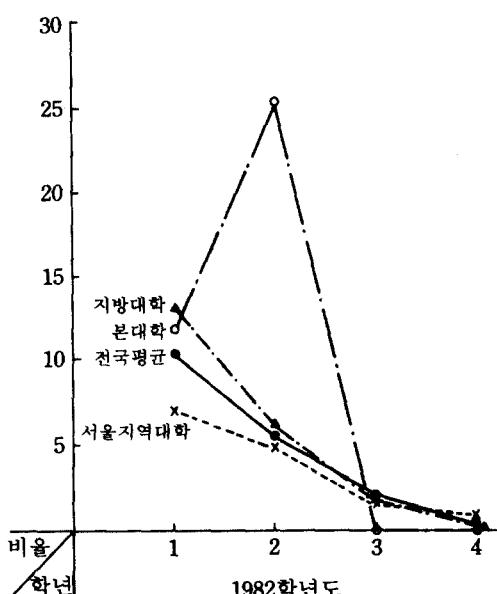


Fig 17. 전국의대 학년별 유급율 비교도
(전국평균 : 서울지역대학 : 지방대학 : 본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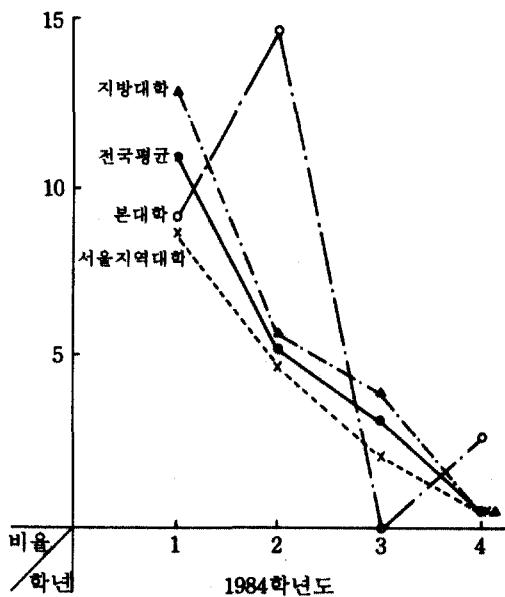


Fig 18. 전국의대 학년별 유급률 비교도
(전국평균: 서울지역대학: 지방대학: 본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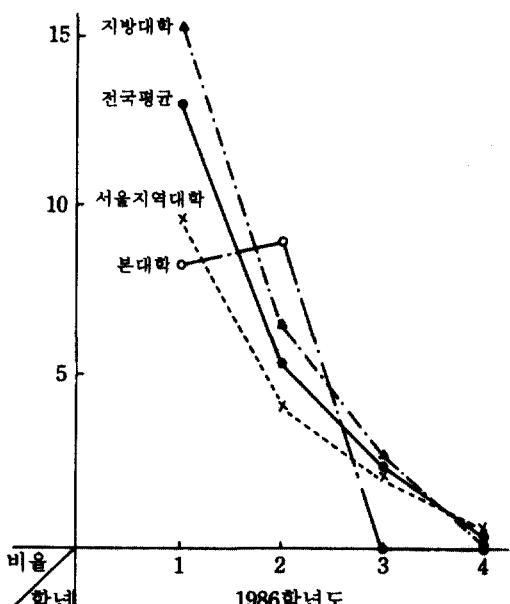


Fig 19. 전국의대 학년별 유급률 비교도
(전국평균: 서울지역대학: 지방대학: 본대학)

율은 232(57%) : 177(43%)이며 이것을 학년별로 보면 1학년 재학생 118명 중 정상: 유급은 79(67%) : 39(33%), 2학년 재학생 105명 중 정상: 유급은 62(59%)

: 43(44%), 4학년 89명 중 정상: 유급은 37(42%) : 52(58%)로 재학생과 유급생이 거의 비슷한 수를 이루고 있다.
이들 중 2회 이상 유급생을 보면 전학년에서 47명(12%), 3회 이상 10명(2%)를 나타내었다.

고 츠

오늘날 사회가 발전하고 인구증가에 따른 국민의 의료에 대한 요구가 급격하게 증대된 시점에서 발생된 문제 중의 하나가 의대의 증설과 의대증설에 뒤따른 의대 졸업생의 양산(量産) 체제의 들입을 들수 있다. 이러한 의대 증가는 교육시설, 교수요원 및 교육내용의 모든 부문에서 미비하고 부실한 면을 나타내게 되었으며 의학교육 기간중 동료학생간의 심한 갈등, 수련의 과정의 과잉경쟁,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교육차질, 이로 인하여 결국 의료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 의료윤리 문제가 야기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일선 의학교육자들은 앞날을 걱정하게 되었다¹⁾.

의학교육담당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의학교육의 문제점들은 많이 열거할 수 있겠으나 대개 다음과 같다²⁾.

1. 국가고시 지향주의의 교육탈피
2. 의예과 교육과의 연계성
3. 의학교육 커리큘럼의 대학간의 차이점
4. 교육내용의 범위 및 정도(의학과 교육과 전문의 교육의 혼란)
5. 기초의학 교육자 육성
6. 평생교육, 윤리교육
7. 의과대학 지원자 선발문제
8. 의학과 석·박사 문제
9. 의학교육 연한을 8년으로 하는 문제
10. 통합교육
11. 유급문제

특히 타대학과 달리 유급제도가 일반화되어 있는 의학교육에서 학생교육정도를 평가하는 문제를 다루어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서로 합리적인 평가를 하므로 평가의 바이어스를 최소한 줄여보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 사실 일선의학교육자들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을 양성하고, 또 배출된 의료인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란 그것이 잘되고 못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고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볼 때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의료인 자신들은 모두 길고도 험한 교육과 수련을 받아 의학교육자가 되었으나, 반대로 후진들을 가르친다는 입장에서 학생을 평가한다는 교육적 행위에 대해서는 비전문적으로 무감각하게 타성에 젖어 왔다고 해야 할 것이다. 급속히 증가하는 최신 의학지식을 어느 선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가르친 내용이 어떻게 전달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려는 노력은 모두가 부족한 것 같다³⁾.

학습평가는 적용되는 방법에 따라 학생들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설정된 교육목표의 범위와 수준에 따라 의학과 졸업생들의 자질이 결정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겠다는 교수들은 인식이 과거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있다 하겠으나 아직 이에 관련된 교육자료들이 부족한 현상이다³⁾.

1988년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영국 '에딘버러'에서 채택된 소위 에딘버러 의학교육선언에서도 의과대학 교수는 의학에 관한 전문가인 동시에 훌륭한 교육자이어야하며 따라서 그들의 과학적 연구나 임상기술을 평가함과 같이 그들의 교육력도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⁴⁾.

교육의 과정 가운데 평가(evaluation)라고 하는 절차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일보다 더 이상으로 비중을 두어야 할 경우도 있다. 교육평가 중에서도 학생들의 배움을 대상으로 한 것을 학습평가라고 하는데 이것을 정의하자면 "학습에 의하여 일어난 학습자의 행동의 변화를 측정하여 이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의학과 학생들에게 과하는 시험은 학습평가를 측정하는 단계로써 한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즉 시험자체가 모든 평가를 대신할 수 없음에도 여러 가지 여건상 평가의 대용으로 활용되어짐으로 모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의학과에 유급제도를 둘 것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학생들이 유급을 하지 않고 배운 바 학습의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데도 있지만, 학생들의 공부를 촉진시키고 배운 학생이나 가르친 교수 모두에게 공부하는 방법, 속도, 내용 등을 한번더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게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수적인 것은 학생간의 등급을 매겨 그 결과를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자료로 삼는 일이 될 것이고 학생들의 평가를 통하여 학생들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로 삼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평가란 교수, 학생, 대학당국 모두에게 중요한 절차라고 말할 수 있다.

평가(유급)를 받는 입장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가르치는 교수들은 모든 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판단을 가지고 세심한 주의를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결론적으로 모든 평가는 타당성(validity)이어야 한다.

학습내용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타당성 있게 평가 하려면 시험출제의 내용이 학습목표에 기준을 두어야 하며, 다양한 평가 방법중에서도 객관식문제 출제와 출제시에는 출제 계획자를 활용하는 것이 좋고, 시험 후 문제분석과 문제공개를 하므로 보다 신뢰도가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그밖에도 의학교육에서는 교육 영역중에서도 태도(attitude)와 수기(skill)의 점수화와 과제물 및 참여도의 점수로서의 반영 등을 고려해 넣어야 한다.

일단 시험이라는 측정과정이 끝나면 그 결과를 해석하여 어떤 판단을 내리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혼히 학생들의 시험에는 학습평가를 A, B, C, D 또는 100, 90, 80 등의 등급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P/F (pass/fail) 또는 S/U(satisfactory/unsatisfactory)로 나타내기도 한다. A, B, C, D나 숫자는 학생들 상호간을 비교하여 등급을 매기는 방법인 상대평가(norm-referenced evaluation)로서 반드시 우열을 구별해야하고 그래서 A가 있기 위해서는 B, C, D가 있어야 하지만 P/F나 S/U는 어떤 기준을 세워 그 목표에 도달하면 합격이고 미달하면 불합격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는 절대평가(criterion-referenced evaluation)이라 하는데 의학과의 평가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같이 이용하여 유급제도에 적용하고 있다고 보겠다.

이처럼 평가는 그 방법 여하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태도와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교육을 맡고 있는 입장의 교수로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되며 이것이 가르치는 것과 맞먹은 중요한 교수의 임무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학생운동 일각에서는 의과대학의 년한제와 유급제를 철폐하자는 움직임도 있으나 대개의 교수들은 현행 유급제도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고시 합격율을 전제로 한 유급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과목별로 유급수에 차이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학년별 유급의 인위적 조정을 불필요하고 유급은 가능한 적체 시키자는 애니 나오고 있다.

저자들의 조사에서 전국 의학과 1학년의 년도별

유급율을 전국평균을 중심으로 서울지역과 지방대학간의 비교를 해보면 전국평균은 년차적으로 상향조정되는 가운데 서울지역의 대학보다 지방대학에서 유급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본대학은 오히려 년차적으로 하강되고 있다. 지방대학에서 서울지역보다 유급율이 높은 이유는 쉽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대학들이 보다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하므로 서울지역의 대학보다 국가고시 합격율을 높혀 대학의 전통을 살리려는 자구책이 작용되었다고 부분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본대학 유급율의 년차적 하강은 신설대학이 처한 각종 여론과 교수, 교실간의 상호 반성과 견제작용 등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였다(Fig 1). 또 의학과 1학년의 년도별 유급율을 전국평균을 중심으로 국립, 사립대학간을 비교해보면 1984년을 기점으로 유급율이 하강했다가 다시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전국평균보다 낮았으며 국립대학보다 기복이 심한 현상을 보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설명하기 힘들며 계속적인 추이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Fig 5).

일반적으로 신설대학은 기존대학보다 훨씬 높은 유급율을 보였는데 이는 모든 여건이 불리한 신설대학의 교육열이 높은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Fig 9).

의학과 2학년의 년도별 유급율을 보면 전국평균을 중심으로 지방대학이 서울지역의 대학보다 약간 높고, 사립대학이 국립대학보다 약간 높으며 신설대학이 기존대학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의학과 1학년보다 전반적으로 유급율이 낮고 기복이 적었다. 그러나 본대학만 유난히 급강하하는 특이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대 서울지역, 사립대 국립, 신설대 기존 등의 그룹을 지워보면 대개 여러가지 측면에서 조건이 불리하거나 여건이 부족한 대학그룹에서 유급율이 높게 발생하지 않을까하고 사료된다(Fig 2, Fig 6, Fig 10).

의학과 3학년 4학년이 되면 유급율이 의학과 1, 2학년보다 많이 낮아지는 현상은 전국에서 공통된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임상과목에서는 거의 유급을 시키지 않는 관례가 적용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미 의학과 1, 2학년에서 유급이 어느정도 되므로 자질이 고른 학생들로 상급생이 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Fig 3, Fig 4, Fig 7, Fig 8).

1982년도, 1984년도, 1986년도 전국의 대학년별 유급율을 보면 전국평균치를 중심으로 국립대 사립, 서울지역대 지방대학, 기존대학 및 신설대학 공통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급율이 거의 직선적으로

하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모든 대학이 서로 약속 이행을 하는듯한 인상이다. 그러나 그 유급율 정도에 있어서는 국립대학에 비하여 사립대학이 다소 높고, 지방대학이 서울지역보다 약간 높으며 신설대학이 기존대학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속에서 본대학의 유급율의 변동은 의학과 2학년을 고비로 급속히 하강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본대학의 기초의학 교육자들의 열성으로 과도한 기대치를 학생들에게 걸고있다는 증거로 해석해 볼 수 있다. (Fig 11, Fig 12, Fig 14, Fig 15, Fig 16, Fig 17).

년도에 따라 유급율의 변동이 있기도 하고 유급율에 뒤따른 원인은 여러가지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분석하기로는 졸업정원제, 신설대학 교육의욕 과잉, 학생들의 양적 팽창에 따른 자질저하 등으로 열거해 볼 수 있을것으로 사료된다.

본대학의 년도별 학년별 유급현황을 보면 최근 5년(1982-1986년) 전학년 년도별 평균 유급율은 8.1%였으며 1986년도가 5.3%로 가장 낮았고 1982년도가 16.8%로 가장 높았다. 이는 같은기간 동안 전국평균 유급율 5.5% 보다 높고, 국립대학 4.8%, 사립대학 5.3% 보다 높은 율을 나타내었는데 신설대학으로써 학생들에게 거는 기대치가 큰것이 유급율이 높아진 원인의 일부로 해석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방대학의 유급율 6.5%로써 서울지역 대학의 4.2% 보다 높았고 신설대학이 7.0%로써 기존대학의 4.9% 보다 높았다(Tabel 1, Tabelle 3)

참고로 본대학의 학생들의 학년별 정상학생대 유급학생들의 분포를 비교해보면 전체학생 409명 중 정상: 유급비율은 232명(57%) 177명(43%)로 상당수의 학생이 유급을 경험하고 있다. 이것을 학년별로 보면 1학년에서는 재학생 118명중 39명(33%)이 유급생이고, 2학년 재학생 105명중 47명(41%)가 유급생이었으며 3학년 97명중 43명(44%)가, 4학년은 89명중 52명(58%)으로 학년이 올라 갈수록 유급율이 올라가 거의 반반을 이루고 있었다. 이들중 2회 이상 유급한 학생이 전학년에서 47명(12%), 3회이상 10명(2%)을 나타내었다.

이상으로 최근 5년간(1982-1986)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유급현황을 조사하고 그속에서 본대학의 위치가 어느정도인가를 조사하여 보았다.

저자들은 의학교육에 비교적 늦게 참여하게 된 신설의대의 의학교육 담당자들로써 나날이 발전하는 의학 교육방향 설정에 필요한 지표를 삼고자 그 일환으로 전국의과대학의 유급율을 분석하였다. 설문지 기타 자료를 통하여 1982~1986년 사이 최근 5년간의 추세를 후향적 방법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최근 5년간 의과대학 의학과 유급현상은 전국적으로 다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전국 의과대학 평균 유급율은 5.5% 이었고 국립대학은 4.8%, 사립대학 5.3%, 본대학은 8.1%로써 비교적 높은 유급율을 나타내었다. 전반적인 경향을 볼 때 사립대학이 국립대학보다 유급율이 다소 높았으며, 지방대학이 서울지역대학보다 또 신설대학이 기존대학보다 높은 유급율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급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본대학의 최근 5년간 유급율은 평균 8.1%로써 1982년의 16.8%의 peak를 이룬 이후 점차 하강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대학의 재학생 중 유급생의 비율은 전체적

으로 볼 때 57%: 43%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급생의 비도가 증가함을 나타내었다. 2회 이상 유급한 비율은 12%였으며 3회 이상은 2%를 나타내었다.

후기

본 연구를 위하여 수고하여주신 박광열 사무과장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1. 조규철 : 의학교육의 문제점. 대한의학협회지 30; 8: 823.
2. 문태준 : 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세계적인 추세. 의학교육세미나 1987.
3. 김용일 : 의학교육평가.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
4. 박형종 : 의협신보 1988년 11월 21일.

제목 : 유급

1. 유급제도는 필요하다.

- 그러나 국시 합격율은 견주로 한 유급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 과목별로 유급에 수에 차이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 학년별 유급의 조정은 불필요하다.
- 유급은 가능한 한 적체 시킨다.(졸업정원제를 전제하지 아니한 견지에서 볼 때)

좌장 : 강진무
기록 : 권영대

2. 현행 유급에 대한 학칙은 비교적 적당하다.

3. 유급조정을 위한 객관 타당성 있는 교육과 출제 평가가 필요하다.